

2001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生活福祉局

日 時 2001年11月29日(木) 10時07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10時07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업무들이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주민의 생활향상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효율적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감사자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에 의해

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불충분한 답변 등은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生活福祉局 李炳滿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9日

生活福祉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委員長 李憲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으로부터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社會福祉課 崔容洵 課長입니다.

다음은 地域經濟課 金容善 課長입니다.

다음은 環境衛生課 洪柱喆 課長입니다.

다음은 清掃行政課 權赫祐 課長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委員長 李憲九 이어서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 그리고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OECD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둔

화와 고실업을 예고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쌀농사 풍년으로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심을 갖고 취업정보 운영의 내실화와 고용촉진 훈련의 실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노동부 산하기관인 종로고용안정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구인구직 연결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실업대책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쌀팔아주기 사업과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어려운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보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 및 2002年度 主要業務推進計劃

(生活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앞으로 폭증하는 복지증진 수요에 다각적인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3,000만원을 했죠? 국장님!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3,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네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요구하기는 1억 정도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1,000만원을 해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지만 기회가 있다고 하면 금년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기금이 적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복지 기금이 50% 정도는 되는 시점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지 사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성만 해 놓는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바로 구성해서 하도록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말씀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서를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까 다른 기금들은 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노인 복지기금도 삼사천만원 올라와 있고 문화발전기금은 1억씩 올라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1,000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5억이 되려면 50년간 모금을 해야 5억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위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여성발전기금 조례도 집행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의지

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따라줘야지 차라리 1,000만원을 올리려면 뭣하러 올립니까? 차라리 말아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1,000만원을 올릴 바에야 무엇 하러 올리나 이거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형편상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예산이 형편상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1억씩 넣는 것을 5천씩 쪼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다는 기금이 조성된 데는 1억씩 배정하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데는 3,000만원 하는 데다가는 1,000만원 배정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생각해봐요. 언제 5억을 만들어 사업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정년퇴임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의원들도 다 나가서 늙어서 저 세상에 간 다음에 하겠네요. 5억 만들려면 1,000만원씩 해봐요. 50년 해야 5억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 줄이기와 폐품 재활용을 위해서 착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폐품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일반쓰레기 중에서 32% 정도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활용 분리수거량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가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전체 쓰레기량 중에서 재활용으로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평상시에 보기에는 이 재활용품 수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병 같은 것을 잔뜩 모아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부너회더러 가져가라고 했더니 세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한나절을 끌고 다녔다가 1만 2,000원 받았대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폐품 모아놔도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실태인데 제가 전에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국에도 사실은 폐품 수거하는 데 2중가격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폐품을 제대로 수거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폐품 재활용을 활발히 하려면 폐품 수거에 2중가격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비싸게 사 가지고 필요한 곳에 싸게 주면 길거리에 신문조각 하나도 굴러다니지 않을 것이 아니냐, 과거에는 냄마들이 아주 조그마한 종이대기까지 다 줍고 다녔는데 지금은 몽땅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나라인 미국에서 매년 폐지를 80%씩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엄청난 종이들이 불태워지고 있는데 비닐이나 비닐로 만든 제품들이 불태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기업에서 환경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2중가격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다못해 비닐 하나라도 태워지지 않도록, 신문조각 하나라도 태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폐품 재활용이 활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계몽이나 홍보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쓰레기도 줄이고 폐품도 활발히 수거를 해서 폐품 재활용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3개 동을 감사를 나갔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교통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사망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에도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서류가 전산에 있는 사망날짜 입력 데이터하고 사망자 신고대장하고 교통수당 지급된 대장하고 세 가지를 입체 조사를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적출하다 보니까 분기까지 3개월 동안 3만 6,000원씩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망 신고자가 늦게 해서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고를 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담당직원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업무과다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못해서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개 동에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월로는 34개월분이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에 대해 날짜로는 3개월이라면 그 금액이 1개 동에 수반되는 예산이 매년 불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기 전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일 때문에 그런 것은 추후에 상세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3개 동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금액이 34만원 이상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구별로 동별로 보면 이 예산은 우리 주무국장님! 노인교통수당이 전에는 표로 이렇게 할 인권을 주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티켓으로 주다가 현금으로 주는 것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동안에는 버스표로 해 가지고 드렸는데 그것이 매대대상이 되고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현금으로 지급 전환된 것이 작년입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95년도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렇습니까?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국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 제도를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노인교통수당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사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노인교통수당이 사망을 전후해서 지급 상태가 항상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 대개 분기 첫달에 20일을 전후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기 첫달 20일을 전후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단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은 물론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겠죠. 지급기준일 이후에 사망하셨다고 하면 그 분기 것이 기이 지급되었으면 그 분기 것은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했는데 지급한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분기 것은 일단 지급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안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망했는데도 새로운 분기에 지급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4개월치를 사망 이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4만 8,000원이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鄭泰淳委員** 분기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면 그 후에는 지급이 안되어야 되는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3개월치는 안되는데 한 달치는 관계없습니다.

○**鄭泰淳委員** 4개월이라는 것에 3개월치만 해당되고 1개월은 그 뒤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각 동을 보니까 34개월치니까 이것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작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예산이 그래도 1년에 36만원 44만원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면 대다수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인구당 1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대단한 손실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급기준일을 분기로 지급하는 자체가 제도가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면 시행을 안 하니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페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개 동을 조사하고 나머지 16개 동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보고 다시 하겠지만 분명히 국장님!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몇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작년 7월부터 했을 겁니다.

○**鄭泰淳委員** 만일에 모르면 뒤의 직원한테 물어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다음은 **李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서 신청한 자료에 보면 222쪽하고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보면 종로구 어린이집 구립, 사립 보조금 내역이 2000년도와 2001년도 10월말 현재 해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도 보조금 내역에 합계가 2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2000년도에 여러분께서 소모하신 돈입니다.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李東奎委員** 다음 장 2001년도를 보시면 22억 8,325만 7,710원을 소요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2000년도는 12개월 분이고 2001년도는 10월달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두 달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추세로 준다고 하면 월별로 약 2억 정도 나간 것이 되기 때문에 거의 숫자가 비슷하리라고 계산이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두 달분이 그렇다면 인건비 차액이 현재 나와있는 것이 1억 9,5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社會福祉課長 崔容洵입니다. 12월달에 상여금도 포함되고 해가지고 그것이 차액이 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아동별 지원은 두 달 것이 7,900만원 이상이 차이 납니까?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간식비 같은 것도 두 달 차이가 3,200만원 차이로 무려 지금 3억 9,700만원이라는 돈이 두 달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지원내역을 자세히 보면 실직지원비 같은 것은 2001년도에는 없었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다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 두 달은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무의미한 답변이 아닐까요? 2000년도에는 실직지원비가 무려 885만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없잖아요? 자료에 나와있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실직지원금은 연말에 지원합니다. 두 달 동안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각 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실직지원금을 연말에 가서 줍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작년에도 연말에 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계장들이 와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작년에 주셨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최소한도 수감장에는 주무계장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조역할도 안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가졌고 얼마나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가졌으면 이런 수감장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해 주시고 자꾸 피해 가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마는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해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그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어제하고 오늘 우리 생활복지국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炳滿 局長님! 종로 거리에 휴지통이 없죠? 그동안에 종로 대로변에 휴지통이 없었죠? 그 동안에 없다가 다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그동안에 없다가 서울에서 매스컴에 나오고

○宣相善委員 도로에서 담배꽂초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다시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지금 대로변에 몇 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제작해서 지금 대로변에 설치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종로 관내에 60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40만원씩입니다.

○宣相善委員 현재 60개 났다고요? 대로변 어디에다 났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하고 왕산로 일대의 건널목이라든가 지하철 입구 그쪽에 60개를 배치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 계획을 보니까 50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개당 단가

가 5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단가는 사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한 것이고 수량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한 200개 정도를 지원 해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량을 줄였습니다.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어차피 종로에 현재 제작하고 있으면 그 모양대로 설치해야지 다르게 변형된 모양으로 휴지통을 만들겠습니까? 단가도 같아야 되고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그런데 지금 현재 휴지통이 기능상으로 투입구라든가 또는 분리수거함이 없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델 사양은 같이 하되 기능은 보강하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제작해서 나왔던 휴지통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 만들 때 정말로 세밀하게 계획하고 이 주민의 혈세가 정말 잘 쓰여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만들어서 못 쓰면 버리고 다시 제작하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업디자인센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宣相善委員**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서 놔두었던 휴지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산업디자인센터에서 만들어서 나온 그 모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개선된 휴지통이 새로 나올 것입니다.

○**宣相善委員**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일관되지 않고 보기가 흉하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청소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해도 표시는 나지 않고 고생은 많고 또 청소행정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우리가 지

향하고 있는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여기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행정이 잘못되면 모두가 그동안에 잘했던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宣相善委員** 지금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의 많은 부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약하다, 뒷골목에 가면 지금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즉시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든지 해야 되고 또 대형 생활폐기물이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곳곳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긴급기동반을 통해서라도 자꾸 수거를 해가면 발생되지 않을 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담배꽂초도 버리고 다른 휴지도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붙여서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모아서 놔둡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즉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1주일도 머물러있다 보니까 마치 일반쓰레기도 놓는 것처럼 더욱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갖다버리기 때문에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말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도 그 부분이 청소행정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대행을 하는 데가 있고 동부 쪽으로는 대행이 많이 합니다마는 대신이나 평이나 신창 이런 데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도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대행업체나 아니면 청소행정과나 또 동사무소에 알리게 되면 그 알려주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치웠을까 하고 가보면 또 안 치우고 겨우 봉투에 담아놓은 것 그것도 삼사일씩 지

연되어 가지고 계속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승인2동에 지금도 마대자루에 쌓여있는 것이 언제부터 치우라는데도 2개월이 되었는데도 그 장소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시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빨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宜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소는 열심히 했어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우리 李炳滿局長님! 오늘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100% 참석하셨습니다. 보셨죠? 한 분은 불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까라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는 행정관서의 핵심부서가 총무국이나 지금 말하면 행정관리국이죠. 그런 부서였었는데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핵심부서가 중심부서가 바로 생활복지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예를 들면 모든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오고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제가 감사를 아직은 핵심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다. 지방자치제의 원래 목적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하향식 통치 시스템에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상향식 참여 시스템으로서의 기조를 개편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런데 금방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번 에 저희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

고 2001년도의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2001년도의 예산이 대폭 2000년도보다 감액이 되었다란 얘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립, 사립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약 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는 이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복지행정이 오히려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모든 매스컴에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도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선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에 예산을 너무 낭비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감동을 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복지행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능하신 李炳滿 生活福祉局長께서는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개선하고자 소신을 밝힌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千委員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요즘 복지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많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예산 중에서 30% 이상은 복지예산이 안된다는지 해서 좀 경기가 좋을 때는 30%면 많은 예산을 줄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중 30%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하면 복지예산이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시설 하나를 하게 되면 시설비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운영비나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복지예산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간인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립은 시설 다 지어주고 인건비 대주고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단 생활이 어려운 분은 민간에 위탁을 하되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지원해주면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덜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해서 그런 분야를 검토를해보자고 보사부 쪽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서도 그런 경쟁력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가야 되고 또 시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복지예산을 절약하면서 적절한 복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李局長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2년도 향후 복지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洪起瑞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20%가 아니고 몇 분의 1정도로 감액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말씀에는 의지가 보이는데 말씀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향후 대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건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각종 대외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줄었고 또 복지 예산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나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 시설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저희가 과감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일단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질문한 것은 세부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중요한 부서의 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철학을 듣고 싶어서 개괄적인 것을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 副議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어제 그제 동사무소에서부터 연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별로 쓸 사이가 없는 부분인데 가격표시제 추진내용이 있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金正大委員 위반업소 추진내용과 위반업소 조치실적을 2000년도, 2001년도 10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간의 통계를 밝힌 것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건데 33㎡이상인 소매점이 471개소인데 종로구에 33㎡이상 소매점 업소가 471개밖에 안되니까? 소매점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3㎡ 그러니까 10평 이상 되는 장소에서

○金正大委員 소매점 업소가 471개밖에 안된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동별로 나와있는 현황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동별로 나와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동별로 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471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어느 시장 두어 군데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데이터가 동별로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별로 몇 개가 집합이 되어줘야 471개라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매점이 지금 분명히 47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보시고 싶으시면 대장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소매점 33㎡ 이상이 471개소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엉터리가 아닌가, 동별로도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집계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정소매점이 467개가 있는데 이것도 33㎡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적과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많은 경우에

○**金正大委員** 됐습니다. 일문일답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471개소라는 것은 주로 어떤 유의 점포를 말하는 겁니까? 지정소매점이란 종로구청에서 지정해줍니까? 당신들은 소매점을 하라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소매점을 하라고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업소로서 구청장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소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주로 시장지상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무슨 시장지상가요? 어떤 시장?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각종 건물들에 상존해 있는 지하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빌딩 내에도 있고

○**金正大委員** 소매점에 가 가지고 제가 볼 때가 격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 본 것입니다. 전시적인 표현이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대한주부클럽, 서울 YMCA 이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각종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금년 11월 20일날 각 5개 구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 종로구가 가격표시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金正大委員** 그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인데, 종로구의 자랑거리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인이지만 본 위원도 공인입니다. 매스컴이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자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는 수감장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위원님! 이것은 복사해 가지고, 저희가 허위로 만든 서류가 아니고 소비자단체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우리 종로구에 자랑할 만한 것이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잘하라는 질책적인 얘기가 많다, 우리 의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가끔 우리 위원들은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하게 미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됐고 꼭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고 싶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250페이지에 보면 가격업소 위반단속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랑거리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는 지금 모니터요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가격표시 지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 종로구가 가장 잘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金正大委員 시정권고가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것을 시정해달라고 권고를 구청장 명의로 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 현장에서

○金正大委員 종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했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가 구두로 권고를 한 것도 있고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

○金正大委員 구두로 한 것도 여기 집계 35건에 포함된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권고를 저희가

○金正大委員 이런 식의 수감자료 표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35건의 공문서로 시정권고를 준 점포가 있다면 그 실적을 제출해주시십시오. 그런데 그냥 구두로 말로 잔소리 좀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수감자료가, 알겠습니까? 국장님! 35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시정권고 나간 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잘해주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 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承台 前議長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좋은 행정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폐수물에 관계된 것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현재 종로구의 폐수배출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원이 6개 죽 있는데 여기에 도급하고 귀금속 가공업소 이것이 저희 지역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성사 뒤 권농동,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00년도에 35개, 2001년에 34개로 도급이 되어 있고 조립제품 제조도 53개, 5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環境衛生課長 洪柱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洪承台委員 정확하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허가를 낸 사항이고 허가를 내지 않은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묘동 쪽으로만 해도 가공업소가 내가 보는 것만 해도 100군데가 넘어요. 숫자는 물론 일일이 인원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폐수물이라는 것이 금하고 은은 염산과 황산을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물이 만약에 하수구에 들어가게 되면 쇠파이프가 다 녹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속 자체도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도 문제가 있고 물론 구청에서도 인력 때문에 나가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검사 훈순보 자체도 이 지역이 폐수에 문제가 있다해서 지방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철저히 무허가로 하는 것을 철저히 색출해서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洪承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위생과장 洪柱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신고업소 및 배출업소 현황은 전부다 신고업소입니다. 무신고 업소는 지금 현재 추계로 300개 내

지 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3,4가 일대가 귀금속 가공업이 전국의 숫자 파악이 2,6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종로구 관내에 천사오백개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귀금속 가공업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만 가능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수질보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과규정에 의해 가지고 2000년 10월 23일 이전에 귀금속 가공업소 한 것은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허가업소가 950개 정도로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개 내지 500여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단속과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위생과하고 환경과가 합쳐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환경업무는 더 떠오르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환경부서 직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洪承台委員**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오륙백개의 무허가 업체가 사실은 폐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계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데 한강은 서울시 모든 시민의 생명의 물인데 그 자체를 망가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인력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하나를 만들어도 타당치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복지국장님은 행사장이다 뭐다 하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 신경써야 될 부분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는 안하고 다른 것에는 수백명, 수천명 동원시켜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몇 군데를 나가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로

구 실정상 쓰레기적환장을 갖다가 한 군데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지자체가 시작된 지 10년이고 의회가 구성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녹음테이프까지 주면서 재활용센터를 만들라, 한군데라도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연구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한 것이 10년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핑계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산 갖고 충분히 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이라면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1,000평 내지 1,500평 지하 땅굴을 파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두어 군데 있어요. 이것을 의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궁 같은 곳에 쓰레기적환장이 생겨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사진을 찍어가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승인2동에 가봤더니 전부 과거에는 직접하더니 요즘은 용역을 썼더군요. 평야 실업하고 대성인가? 이 넓은 곳에서 9명을 용역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쓰고 있는데 대행업체 돈을 벌려주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9명밖에 안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도 청소행정과에 와 가지고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적환장 문제를 먼저 말씀해주셨는데요. 적환장 문제는 지금 구에 보면 서너 군데 적환장, 소각장이죠. 소각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적환장도 지역별로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대형적환장을 가지고 있을 여건이 안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적환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대로변에서 큰 콘테이너박스에다 이적을 하게 되면 지금 효자로 같은 데도 이적장이 있습니다라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1.2가 종로 종묘공원에 있는

적환장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은 광역화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적환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시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서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중량천변에다가 광역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공주변 상차장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송정동에다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성동구청을 설득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적환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일단 적환장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적환장 같지 않게, 쓰레기처리를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여질 정도로 아주 수준높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송인2동 용역문제는 먼저 宣相善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대행업체로 가는 방향은 맞고 또 종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방향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거든요. 아까 宣相善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이 종량제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문제점입니다. 종량제라는 게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송인2동 같은 경우에 9명이라면 모자랍니다. 모자란 현상이고 지역별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내지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承台委員** 송인2동에 9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곳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1~4가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청소행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도대체가 어찌구니 없는 행정이 아니냐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답변이 그렇습니다. 광역 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의 적환장 가보셨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가봤습니다.

○**洪承台委員** 이거 오래됐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이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정도는 벌써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적인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은 좋죠. 이러다 또 5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대로의 적환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구립노인정, 시립노인정, 어린이집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또 여러 가지 수리비 등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립노인정이나 구립노인정을 세워놓고도 노인분들이 몇 사람 안 오는 구립노인정이나 시립노인정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것도 구립이 24개, 민간 어린이집 41개 있는데 동에 따라서는 없는 동도 있어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줄일 곳은 줄이고 있는 곳은 수리를 잘해서 정말 노인정답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인정할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없앨 곳은 없애고 있는 곳은 잘 해서 노인정다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노인정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노인정은 잘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종로주민이 살지 않고 아예 노름판이 되어 있는 사립노인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같은 날 보면 격려금을 사립노인정하고 구립노인정을 똑같이 격려금을 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도 고려해서 줄 필요 없는 곳은, 우리 같은 1~4가동은 사립노인정이 15군데이고 구립노인정은 파고다노인정이 있다가 없어지고 한 군데 있는데 격려금은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복지국장입니다. 洪委員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대형화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 행정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97년도인가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로당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를 뽑아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어르신 숫자, 어린이 숫자 그리고 타구 숫자하고 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종로구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숫자가 월등히 많았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은 어르신 숫자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거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사립경로당에 대한 격려금 일괄 지급 문제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사립경로당에는 연료비 이외에는 운영비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어르신들 잔치하는데 격려금 1년에 한두 번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쥐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洪起瑞委員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셔서 질의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다섯 군데라고 했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洪起瑞委員 장례식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고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2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3시 30분에 영안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장 후에 06시에 출상을 해요. 그래도 3일을 전부다 징수를 합니다. 또 모든 음식물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지 상주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반입을 안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애사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는 이런 상주들한테 이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런 병원의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독기관에서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洪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단면이고 병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나가서 하면서도 이 문제는 한 장례식장에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 문제만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한번 정부 단위든지 서울시 단위든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다른 병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지만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는 실제로 국립 병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같은 데도 보통 3일장을 한번 치르고 나면 장례비가 천사오백만원씩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장례 한번 치르다가 집 팔아먹는 것과 똑같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 병원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사립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기관에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을 시켜야지 예를 들면 아까도 장례식장 비용이 보통 3일장을 하더라도 밤 11시 30분에 들어와서 그 날 30분 쓰는 거예요. 그 이튿날 3일장하고서 6시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쉰니까? 6시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3일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일 것
을 쓴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은 음식
물을 반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커피 하나를 못 가
져요. 전부다 자기들 것을 쓰라고 해요.
이렇게 횡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6쪽에 사회복지시설이 나열되어 나와있는데 지
금 현재 은혜·문혜 장애인요양원하고 서울정신
요양원은 사실 우리 종로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
고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요
양원은 우리가 굳이 떠맡고 있을 필요가 없고 경
기도로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은 어떠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보사부에 수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시설이 저희 종로구에 있었고
또 복지재단이 종로구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88
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지방으로 분산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 종로구에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
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혜택주는 것
도 없고 왜 우리가 관리하느냐 해가지고 아마
시·도 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저희가 국·시
비가 나오면 그것 예산을 주고 1년에 한두 번씩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차 건의는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도는 서울시
에서 나오는 모든 어려운 시설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받는 것을 거
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그것을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 하
게 되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점검도 해볼 수 있
지만 우리가 잘해야 마음먹고 나가야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비능률적인 문제는 건의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국가적인 사업을 도에서 안 받는다
고 해서 못 넘겨주고 받는다 고 해서 넘겨주고 이
런 것은 안되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이
사를 갈 때 행정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경기
도하고 완전 합의 하에서 갔으면 좋은데 그런 합
의 절차가 없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저희
를 통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서울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한다
는 것도 상호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가 구민생활관으로 넘어왔죠? 거기에서 관리하
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독서실 관리하는 것
이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
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2개소가 인원이 지금 많이 차고 있
나요? 운영하는 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
느냐는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지금 224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동망산독서실이 있었는데
폐지시켰고, 창삼독서실이 작년에 1만 4,300만이
이용했고, 낙산독서실이 1만 582명이 이용했습니
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위탁
을 해준 거죠?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 구에서 나가서 직영을 안하는
거죠?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洪起瑞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는 하루에 십몇 명 이십몇 명, 많이 와야 40명
왔어요. 지금 구민생활관에서 하다 보니까 95석
이 넘쳐 가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해서 다시
시설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것

은 그만큼 애정을 갖지 않는지 어떤지 다른 데에 다 넘겨주면 운영이 잘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다른 민간 단체나 다른 데에 넘겨주면 활성화가 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게 저조하느냐는 얘기죠. 민간업체에 대행을 준 것도 저조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청소년회관을 건립해놓고 막대하게 십몇 억씩 들여서 해놓고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었을 때는 인근에 있는 본 위원이 정말 당혹스럽고 다른 의원들한테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과연 이용률이 적어서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민생활관에서 운영한 지가 3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지금 가보면 줄을 서 있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고.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해요. 남자 독서실을 45실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해요. 도대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되고 넘겨주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국장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단에 넘겨서 운영하거나 민간에 넘겨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이나 공단에 위탁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탁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고 그래서 실적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모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좀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보더라도 구에서 할 때는 썰렁하니 빈집 같이 되었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서 잘 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청소년회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 같은 것도 직영을 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

심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웃사랑 실천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감사장도 주고 표창도 달아주죠?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 업소를 지정 받고 나서도 지정 받기 전과 똑같이 그 업소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소의 지정만 받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올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거의 90%가 계속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10%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그것은 계속 동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안하면 표창을 떼어버려야죠. 왜 그러냐면 상인들의 약삭빠른 상술로 해가지고 몇 번 사업을 하고 표창을 달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洪起瑞委員 표창 하나가 영업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어디 뭐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실제로 표창이 안 붙은 데보다도 붙은 데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1년 12달 가도 한번 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독을 해서 과감하게 표창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표창만 달아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이웃사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洪承台委員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환경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생명이 파괴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하다시피 우리 종로3.4가에 밀집되어 있는 귀금속상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극히 해로운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6년도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 귀금속을 다루는 각종 화학약품이나 독극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쥐가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환경위생을 담당하시는 洪柱喆 課長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거나 여러 가지 유해 폐수를 적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예, 宣相善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洪柱喆 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귀금속은 물론 익산 귀금속공단 이외에는 종로3.4가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종로구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천이삼백 개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에는 이것이 자유업이었는데 지금은 귀금속 가공하는데 폐수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신고하게끔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를 시켰더니 지금 현재 신고업소가 650개소가 신고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지도하느냐는 애깁니다. 혹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약품으로 처리해서 정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650개소 신고업소는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되고, 두번째 귀금속 가공폐수를 버리는 것을 적법한 폐수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야만 신고를 받습

니다. 귀금속 가공하는데 첫째로 가공하면 나오는, 연마를 하거든요. 금가락지 같은 것을 연마하는데 연마과정에서 황산이라든지 염산이 나오는데 첫째로 나오는 것은 안 버립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10ℓ를 가공하면 금이 2돈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 폐수배출업소에 버리고 나머지 연마과정에서의 폐수는 버리는 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버리게끔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검찰청 806호 홍순보 검사가 직접 진두 지휘해 가지고 위탁하지 않은 업체는 지난번에 150여 건을 고발 조치해 가지고 구속이 몇 사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벌과금을 몇 백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귀금속 가공업에 있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259쪽을 보면 2001년도 총 대상업소 수가 1,008개 업소인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확한 데이터가 50%도 안되는데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전국에 2,652개가 있는데 그 50%는 종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업소가 1,008개가 있고 무허가업소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미신고업소 숫자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한 4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 접수를 받아주려니까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들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이 400여 개 업소를 무조건 고발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건물에 보통 무허가업소가 23개 정도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화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시다. 무허가업소 400여 개 업소를 그냥 고발하면 사실 문제가 되고 집단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은 당분간 안하고 일단 미신고업소도 모두 적법한 폐수배출업소에 위탁 판매만 하면 그냥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환경을 총괄 지휘하는 실무과장으로서 환경에 대해

서 더 관심을 갖고 이곳에는 더욱이 과장님이 직접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휴지통을 서울시로부터 200여 개를 지원해주도록 했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宣相善委員** 언제쯤 해줍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각 구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파악해서 금년도에 배치를 합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건데요 아마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우리가 흔히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휴지통이죠. 휴지통이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꽂초나 일반 조그마한 휴지를 버리는 곳인데 과거에 휴지통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스텐레스로 제작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어디다 버렸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글썽요. 망실된 것은 폐기 처리했을 것이고

○**宣相善委員** 당시에 예산을 30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매우 아깝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시는 휴지통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냥 막 쓰지 않고, 버려야 하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양 디자인이 예쁘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휴지통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權赫祐** 課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 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 委員입니다. 자료 25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관계인 것 같은데 취업정보센터 이게 '92년 7월달부터 설치되었네요. 그러다가 서울특별시종로구훈령 제67호에 의거 취업정보은행으로 명칭 변경을 했죠? 명칭 변경을 한 게 언제였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98년 8월 31일자로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98년 8월달이죠. 그때 해놓고 그다음부터 실적을 올려왔는데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2000년도 실적이나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한 내용을 보면 종로구훈령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시대에 무슨 명령입니까? 어디에서 우리 종로구에 명령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공문이 왔어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무슨 명령 '령'자를 써 가지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이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종로구훈령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면 훈령이라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다시 해줘야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닙니다. 정식명칭이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정식명칭이 훈령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훈령이라는 것은 조례와 규칙보다 조금 밑의 단계고 내부 직원에 대한 겁니다.

○**李東奎委員** '명령' 자를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구인접수가 2,369명이 구인접수를 했고 구직접수는 5천명 이상이 구직접수를 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알선수가 3,181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취업수를 보면 알선수에 비하면 10%에도 못 미치고 구인접수에 비하면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

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2001년도도 똑 같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동부 워크넷하고 연결망을 가지고 사회 구인 구직접수를 받아서 알선을 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IMF 이후에 구직자들이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한테 구인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 방문판매 업체나 어떤 3D 업종들이 많고 또 저희가 알선을 해도 구직자들이 대부분 3D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선을 해도 실제적으로 되는 구직 비율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 죄송합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이것은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 이것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이것도 연간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글썄요.

○李東奎委員 ‘글썄요’가 어디 있어요? 앞에서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보고서에도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보다도 저희 주민들을 한 분이라도 취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이

○李東奎委員 어떻게 이것을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4,500만원이 연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4,500만원을 차라리 구직자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10%에도 못 미치는 취업자들한테, 못 나가는 취업자들한테 차라리 4,500만원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차라리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입

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짜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취업자수만 가지고 완전 비교를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구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워크넷에 전국적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연결로 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취업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에 대한 어떤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는 홍보적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폐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폐쇄하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더 존속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98년 8월 달에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으로 명칭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다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위원회를 설립했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李東奎委員 그 다음에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가 회의는 못했습니다.

○李東奎委員 회의는 못하다니요? 많지요? 아니면 몇 번이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가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李東奎委員 그러면 '98년도니까 '98년도 처음에 한번 했고, '99년, 2000년 세 번했죠? 세 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또 몰라요? 또 없어요? 바로 그 겁니다. 뭘니까? 이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

고 이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달라고 하든지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을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바꾸자니까 오히려 타구에서도 하니까 곤란하다, 이진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진짜 우리가 볼 때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부르는 걸 못봐요. 그런 걸 뭣하러 만들어놨어요? 그럴 바에는 안하는 게 낫다는 얘가지 뭣하러 만들어놓고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말아죠. 그래놓고 여기 자료 올려놓은 것 보니까 허울 좋게 명분 좋게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10%에도 못 미치고 5%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방향 전환을 시키고 홍보를 더 해 가지고라도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을 인정하고

○**李東奎委員**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유명무실하니까 없애버리세요.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만들어놓으면 뭣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위원회만 활성화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259쪽,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위반업소 조치내용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洪課長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단속 내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약 150여건을 지도

단속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홍검사가 나가기 전에는 한 건도 안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폐수배출업소가 자유업이었다가 2000년 10월 23일자로 수질보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속이 된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자유업이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자유업이었을 때는 우리가 단속할 의무가 없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신고가 안되었으니까

○**李東奎委員** 신고가 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자유업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자유업이라도 관리를 안 해야 되느냐고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왜 그러냐 하면 법에 보면

○**李東奎委員**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예, 자유업이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자유업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사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에는 전부 자유업이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법령집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관리할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은이라든가 독극물, 아까 존경하는 宣相善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은이라든가 또는 염산, 황산 이런 독극물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도입량 같은 것을 측정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법제화되어 있나요?

○**環境衛生課長 洪柱詰** 그런 것이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심각한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도 들어오는 도입량을 측정해 가지고 쓴 다음에 수은이든 뭐든 들

어오는 것을 측정해 가지고 나가는 배출량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게끔 법제화 시켜준다면 방향이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李東奎委員님!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폐수관계가 몰하고 섞여서 되거든요. 들어가는 양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금속 가공을 하는 데 염산하고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 가공과정에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안 버립니다. 적법한 폐수 배출 수거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탁만 하면 우리는 그냥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수은 같은 것도 물을 섞어서 같이 나갑니까? 아니죠?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수은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관계는

○李東奎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149건 현장조사 고발 조치했다고 나와있고 위반업소 수는 157건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도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위원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수질보존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신고업소로 전환되어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시다.

○李東奎委員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25일 15일간 이것은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신고를 받은 결과 무신고업소 157개 업소를 샘플로 조사를 한 것이죠.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뒤에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데요. 폐수를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가공업소가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잘 버리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폐수 자체를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확인합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업소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청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예.

○李東奎委員 그런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그러니까 적법한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만 하면 우리는 그냥 무신고업소라도 그대로 놔두겠다 이거죠. 상당기간 동안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렇게 안하는 업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고발해야죠.

○李東奎委員 아직 안했죠?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지금 방침 받은 것이 11월 중순쯤에 방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은 하루가 아니라 일조를 다루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독극물이나 수은 같은 것이 한강으로 바로 내려가서 서해안에서 잡힌 고기를 여러분! 잡수지 마세요. 다 기형아 됩니다. 우리한테 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만약에 서해안에 사는 어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알아보세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것은 촌각을 다루는 일입니다. 빨리빨리 이것을 해주실 의사는 없으세요? 신속하게 이것은 처리해 주셔서 가지고 우리 洪課長님 개인의 문제이고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심각하게 해주시고 261쪽을 봐 주십시오. 그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대기환경 보존대책 및 계획에 보면 각 대기소음배출 지도점검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정기검사 같은 것을 제

대로 받고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結** 예,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왜 유독 종로구에서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일반 민간업체 즉,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기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環境衛生課長 洪柱結**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기계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학교나 기관의 배출가스 기계가 다른 것은 오차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 내지 0.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李東奎委員**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지역 어르신들 민감합니다. 무슨 건축문제라든가 진동문제라든가 분진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우리가 구청에 연락해서 환경과 직원이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못 믿어요. 왜 그러냐 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하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다시 민원을 넣느냐 하면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 다시 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모 대학에 의뢰해서 그분들의 양해 하에 재봤습니다. 재볼 때 어떻게 재봤느냐 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보지 않게 은폐시켜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전혀 기계표시도 안내고 재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차범위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계도 노후화 되어 있고 그것 인정하시죠?

○**環境衛生課長 洪柱結** 李東奎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관계는 지금 올해 새로 구입을 했고 학교나 환경단체의 기계하고 우리 기계하고의 오차관계는 우리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기계 자체의 오차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과장님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여러 갈래로 벌써 분석해서 한 것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었으면 최소한 요즘은 근접하게 가깝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가줘야 바로 우리 민을 위하는 것인데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민을 저버리고 업자라든가 이런 쪽을 싸고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의 소리를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은 빨리 보완 조치해주시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洪柱結** 그런데 이 기계는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바꾸고 그러지 못합니다.

○**李東奎委員** 아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꿀 의지라도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단정화조 문제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정화조 처리업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종로구 데이터에 보면 10개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무단정화조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1회 정도 청소를 안 한다든가 유형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되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청소 안 하는 데하고 정화조 없는 데하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저희가 데이터로 파악해 보니까 일반 빌딩은 빼고 3만 동 정도의 건물이 되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2만 2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문제는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權課長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李東奎委員** 이것은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반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우리가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지금 그것 때문에 직원도 1명 보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공익근로자도 보강하고 관리프로그램 개선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중으로 그것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명이라고 해서 기가 막혀서 혀를 찼는데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한 명이 아니고 직원 한 명에다가 기존에 한 명이 하던 것을 지금 세 명으로 늘렸습니다.

○李東奎委員 3명 가지고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 종로구 모 동을 가보면 4층 짜리 건물, 5층 짜리 건물들이 정화조가 없이 직수로 빠지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어느 부자동네에 가니까 정화조가 도로 한복판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어요. 정화조라고 해서 봤더니 도로 가운데를 몰래 파 가지고 정화조를 형식적으로 묻어놓고 넘쳐나 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종로구 실정입니다. 이런 데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조금 그때뿐이지 못해서 하는 제스처만 취하는데 최소한 우리 종로구가 아름다운 종로구라는 명칭이 됩니까? 타구보다 아름다우려면 그런 것부터 달라져야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늘장 피우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로 똥덩어리 흘러서 한강으로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權課長님 심각하게 처리해주실 생각을 갖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전체를 제가 지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심각성을 알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4分 會議中止)

(13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동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종로의 많은 경로당이 나와 있습니다. 구립이 33개, 사립이 30개 그런데 유독 종로1~4가동이 16개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16개 맞습니다.

○宣相善委員 이 경로당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구립 경로당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데 사립경로당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라 제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경로당이 여건을 구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사립에 대해서는 연로비가 지원됩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경로당을 돌아보면 어떤 경로당은 서너분 계신 곳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연로비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것을 동단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서너 곳으로 축소할 계획

안이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구립은 그것이 가능한데 사립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신청하고 자기 소유 건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을 합친 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됩니다.

○宣相善委員 어차피 연료비라도 지원을 한다면 서요. 그러면 지원을 안해줘야죠.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많은 경로당이 생겨서 몇 분 안 계신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래서 민간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자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宣相善委員 됐습니다. 구립경로당 33군데에서 경로당 현황을 보면 14평 짜리에 50명이 오는 경로당이 있고 칠팔십평 되는데 20명이 오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면적은 적은데 노인분들은 많고 또 경로당이 굉장히 큰데도 노인분들 인원수가 적은데 이것이 잘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운영문제는 물론 등록인원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등록되었다 해서 동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건물이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곳은 노인분들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단독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복지시설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일부 경로당의 지하나 1층 같은 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물이 크다고 해서 많이 나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적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묘 돈의동에 있는 종묘경로당은 90평에 인원수가 25명밖에 안되고 승인동에 있는 한마음경로당은 10평인데 30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종묘경로당은 쪽방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그곳이 90평 중에서 쪽방 상담소로 일부는 쓰고 있고 탑골공원 새마을회관 서울시지부가 철거했기 때문에 종로노인회 지회가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하여튼 평수가 큰데 인원수가 적다고 하면 유지보수비 등 각종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비도 들어가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 공간을 확실하게 노인분들이 적은 곳은 다른 것으로 빨리 활용하라 그래야만 짜임새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宣相善委員 지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가구가 침수되고 그랬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宣相善委員 어느 동 어느 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나요? 종로1~4가동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종로1~4가동하고요. 청계천을 따라서 5.6가하고 창신1동

○宣相善委員 창신1동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나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창신1동이 440세대 나왔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침수 후의 보상이 적절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적절 관계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장의 주거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재민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물이 빨리 빠졌기 때문에 이재민 수용까지는 없었고 숙식과 식사 문제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온 동은 일부 식비하고 담요 같은 것을 배부해 드렸고 그 외에는 전부 수리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저희가 지급은 다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물론 주거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했겠습니까마는 영업 위주로 하는 지하창고나 이런 데는 수많은 액수의 피해를 입었는데

도 전혀 혜택을 못받은 데가 있어요.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나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문제에 부딪힌 것이 사람이 사는 방에 대해서는 침수되면 다 지불해 드렸고 상가도 역시 소규모 영세상가는 다 지불해 드렸는데 종업원이 5인 이상이라든지 규모가 큰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인 곳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했고 공장인 경우에는 100평 이하인 사업장, 소규모하고 영세한 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했고 대형이나 종업원이 많은 대형점포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아니고 창고를 지하라든지 1층 같은 데 해 가지고 침수된 곳이 많았었는데 보상기준이 상가 또는 사람이 잠을 자는 주거 위주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나 정부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저희도 많이 건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많이 건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급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원들한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의원들한테도 알려서 같이 어느 가구 어느 세대 누가 했는지 알면 좋은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침수지역에 야간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서 녹장을 부렸을 때도 전부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피해내역을 조사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해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할 때는 전혀 알려지도 않고 했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하고 영세상가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 종로구가 주택보다는 영세상가하고 공장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침은 저희 구에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미 기준이 정해서 내려온 그

대로 저희 구청은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저희 지역경제과장들이 본청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갑론을박 불합리한 규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항의도 많이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디. 과거에는 상가라든가 공장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침수피해가 있을 때 한번도 보상한 적이 없고 금년도에 한해서만 특별히 이게 법적으로는 거의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렀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설피해액 100만원 상회하는 그런 걸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엄격히 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피해를 많이 봤어도 시설피해액 액수를 제대로 못 써내 가지고 제외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논의하지 않은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잘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행여나라도 저희가 지침이 엄격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을 때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이게 더 많은 불만의 소지가 주민들로부터 되어서 누를 끼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宣相善委員 과장님이 깊은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겠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못된 법이 있다면 개정도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는 앞으로 그런 수해들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도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법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46쪽을 보면 동별 응급생계비 및 사망·실종위로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자동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평창동에 500만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 이것은 세대주 사망은 1,000만원 그리고 가족이 사망한 것은 500만원 해가지고 3건에 2,000만원 지급되었고, 2건은 응급생계 구호비로 별도로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宣相善委員 사망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창신 3동에 5만 2,000원 지출은 뭐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식구수에 따라서 5만원은, 그것은 응급생계 구호비이기 때문에 식구수에 따라서 쌀이 얼마 나갈 것인가가 다릅니다. 식구수에 따라서 1만 7,000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세대는 적고 식구수는 많은 데와 단독세대는 많고 식구가 많은 데가 다릅니다.

○宣相善委員 생계비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응급생계 구호비입니다. 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세대주가 사망할 때는 1,000만원 나간다면서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것은 사망·실종위로 금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사망·실종위로금으로 나온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위로금 5만 2,000원 명목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여기 5만 2,000원은 생계 구호비고

○宣相善委員 위에는 생계구호비가 아니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응급생계비로 지급한 것이고 사망·실종위로금은 사망·실종자한테만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에 247쪽 동별 특별위로금 지원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은 뭐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수해를 입었을 때 침수 주택하고 상가 등에 대해서 60만원씩 위로금이 나왔고, 침수 후에 추석절을 전후해서 60만원씩이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宣相善委員 구에서 한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닙니다. 시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 데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오전 사무감사에 이어서 오후 사무감사까지 연속되는 사무감사

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문답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경로당 현황이 나오는데 경로당 현황에 보면 규모 평수하고 등록인원이 있습니다. 이 등록인원이 언제 등록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사한 인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년도만 나와있지 조사년도가 나와있지 않아서 인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인원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등록 인원은 등록하면서 어르신들 명단을 받은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동별로 '84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린 거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게 여기 보면 등록인원이 '74년도 짜리도 있고 '78년도 짜리도 있고 2000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등록인원 현황은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인원 점검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전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번 등록을 했는데 '여기 등록된 어르신이 몇 명입니까?' 하기도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잘못되었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李東奎委員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나무라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노인복지 문제 과정에서 아마 노인정별로 배당금인가 무슨 기금에서 조성해서 나눠주는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온고회가 있고 창삼이 있고 사립 노인정이 있고 그런데 사립 노인정은 제쳐놓고 '온고회하고 창삼의 등록인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온고회는 60명, 창삼은 160명으로 상이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조사된 겁니까?' 했더니 70년대

초인가 80년 초래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정하고 배분한다는 자체가 배꼽이 하품을 할 정도라는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주 동떨어진 거예요.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들이 등록인원을 회원수 관리를 위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년도가 그쪽에 기록이 나와있는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등록현황은 그런데 저희가 각종 기금이나 이런 것은 회원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李東奎委員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언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올바른 숫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이 아니고 회원수 개념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점 참고해 주시고, 267쪽을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관리현황 및 분리수거 실적이 나옵니다. 다음 장인 268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나와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회계상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되는 금액하고 지출도 여기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인지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 목적에 맞게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할 수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아닙니다. 조례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절차도 거치

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기금으로 예산을 확정해 저희가 수입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조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재활용품판매 수입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만

○李東奎委員 그러면 쓰고 나서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걸로 그런 식이 되는 겁니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는 사항이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입과 지출은 분명히 구분해서 재활용품판매 기금의 수입으로 잡혔으면 얼마나 잡혀있고 얼마 정도 우리가 지출해서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년도라든가 예산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수입 지출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72쪽 봐주십시오. 대행지역 및 비대행지역 쓰레기 처리 현황인데 대행지역은 수거율이 75%이고 비대행지역은 쓰레기 수거율이 25%로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지역하고 비대행지역의 동을 보면 아시겠습니까마는 대행지역은 우리 중심가 위주로 상가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으로 보면 비율이 많습니다.

○李東奎委員 비대행지역은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대행지역은 민간업체에 이양된 지역이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민간업체에 맡긴 지역은 75%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다는 얘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쓰레기 수거량 중에서 75%는 대항지역에서 수거를 하고 나머지 25%는 직영에서 수거한다는 그런 애깁니다.

○李東奎委員 바로 정확하게 얘기해준 것 같아요. 75%면 100%로 봤을 때 25%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애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쓰레기량에서 75%는 대항에서 수거를 하고 25%는 직영에서 수거를 한다는 그 애깁니다.

○李東奎委員 그 애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25%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75%다, 우리가 가져가는 25%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직영지역에서 수거하는 것이 종로구 지역에서 총 쓰레기량으로 나오는 것이 282톤인데 대항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211톤이다 그런 애깁니다. 대항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211톤으로 75%

○李東奎委員 그것은 알아들었는데요 75%는 민간업체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25%에 대한 것은 직영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대항지역에서 하는 나머지 25%에 대한 수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고 묻는 겁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수거방식은 같습니다. 대항이나 직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대항에서 75%를 하고 직영에서 25%를 하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니, 우리 종로구 전체 쓰레기량이 282톤인데 그 중에서 대항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량이 75% 양이 되고 직영에서 나오는 양이 25%다 그 애깁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국장님이 착각을 하시는지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항지역하고 비대항지역하고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대항지역에서 가져가는 것은 75%라는 수거율을 보이고 있고 비대항지역에서는 25%의 수거율을 보이거든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수거율이 아니라 수거 비율인데요

○李東奎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발

생량 및 쓰레기 수거량은 211톤인데 비대항지역에서는 71톤을 수거하는데 수거비율이 71톤은 어디에서 수거를 하느냐는 거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비대항지역 수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청운, 효자, 사직동 일부하고 똑같이 검단으로 가기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대항과 비대항으로 구분해놓다 보니까 이렇다는 애깁니다.

○李東奎委員 비교표를 헛갈리게 해놨어요. 자료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봅니까? 최소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보시니까 아시겠습니까 마는 헛갈리겠어요? 안 헛갈리겠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교표입니다.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세요.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로 나와있는데 기동대 2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대의 역할은 무단투기 쓰레기 이런 것을 수거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을 파쇄장으로 수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없는,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단투기 쓰레기들과 대형 생활폐기물,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 그것의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왜 기동대라고 했어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무단투기가 수시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면 기동전담반이라는 식으로 해야지 기동반이라고 하든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기동대라고 하나기 기동부대입니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고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타에 6명이 있는데 '규격봉투 배달 등'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규격봉투들을 배달해줍니까? 그것도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왜 미화원들한테 맡겼습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규격봉투 배달을 미화원들한테 시켜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제가 볼 때는 종량제라는 것 자체가 인력 수요를 많이 유발합니다. 분리수거를 한다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반대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로 커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李東奎委員** 아니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규격봉투 배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시켰으면 민영화를 준 곳에서 배달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봉투판매소가 우리 구 전역에 있거든요.

○**李東奎委員**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판매소에서 봉투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바로 대비가 안돼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판매 봉투가 떨어졌어요. 판매하는 데에서 봉투가 떨어졌으면 바로 대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봉투를 바로 사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안 갖다줘요. 어떤 경우는 3일을 지나서 자기가 시간을 재봤는데 36시간만에 봉투가 들어오더랍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신속하게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영업자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놓으면 봉투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빨리 갖다놓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민영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사항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분들이 갖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고려해 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고려를 해주시고,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세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동별 재래식 화장실 현황이 나오는데 227쪽입니다. 각 동별 재래식 화장실 현황에 보면 아직도 우리 종로구가 839개소라는 재래식 화장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네요. 이것을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방안을 혹시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화장실 정도는 수세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도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모두 그렇게 바뀌도록 건축을 할 때는 물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로구의 특성상 일부 고지대 같은 데에 쉬운 말로 수세식이 아니고 직접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지대나 도심 중에서도 재개발지역 같은 데가 화장실 같은 것을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저는 국장님한테 획기적인 말씀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거론조차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아름다운 종로입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839개소가 있다는 것이 만일에 알려져보세요. 전체 1,400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2,000여 종로가족 모두가 세트르 다 망신당하는 일입니다. 20만 종로구민이 세트르 다 당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무슨 월드컵을 치르고 화장실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방안도 지금 검토도 안 해보고, 참 걱정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이 정도 되는데 무단으로 지금 직수 연결해 가지고 한강으로 막 나가는 폐수의 양이 엄청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뭔가 획기적으로 재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황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 승인1동이 1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나왔던 숫자예요. 그것이 공안에 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이것을 책자로 자료라고 올려줬습니까?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때나 한마디하면 조금 시큰둥하는지 전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대적으로 화장실 점검을 하고 수세식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상반기까지라도 제발 부탁하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내년도에 월드컵 치러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그래서 내부의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야지 몇 년째 한번 자료를 조사해 놓으면 그것을 몇 년 계속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빨리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오히려 드립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 때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도 하고 그만큼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자신합니다.

○李東奎委員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실는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먼발치에서라도 지켜보도록 하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팀장부터 해 가지고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제일 저희가 정확조 청소문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전부 수기로 대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뽑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애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정확조 업자하고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정확조업체에서 바로 청소를 했다고 치면 우리한테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각성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기회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2000년도 것도 나오고 2001년도 것도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게 DB화 되어 있을 텐데 사실상 금년도, 2000년도에 나오는 것을 조사를 안 해주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고 카드식으로 수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앞으로 전산화 공부도 하시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 가지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게끔 하나하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숫자 문제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 副議長님!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인내하면서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설책 다루는 소리로 듣고 앉았는지 사랑방 좌담회를 하고 있는지 수감자료도 영터리로 만들려고 감사기간이 있는 건지 매우 속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필이면 가장 말이 없는 승인1

동 여기에 무슨 재래식 화장실이 제일로 많다고 되어 있어서 내가 섬뜩합니다. 이 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설책 읽을 때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사일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무슨 수감자료를 공화당 때를 내놓은 거예요? 자유당 때를 내놓은 겁니까? 민정당 때를 내놓은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바쁩니다. 앞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각 동네 행사 있어서 다 바쁜데 이게 언제 자료라는 것도 모르고 수감자료로 내놨다는 얘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왜 구의원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무보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 푼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상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송인1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121개소라는 것을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의 조사방법 이런 것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알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어떤 동은 혜화동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홉 집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아홉 집은 누구 집인지 밝혀 주실래요? 이런 수감자료는 앞으로 내놓으면 안됩니다. 해당동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수궁이 되는 걸 내놔야지, 됐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金正大 副議長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데이터에 나온 것은 수거식이나 수세식이나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자료를 뺀 거거든요.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작성되었냐고 물으니깐 과장님이 언제 했는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 대장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그 대장이 언제 작성되었던 건지 몰았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기존부터 죽 내려온 겁니다. 현재 분뇨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지금 정리해 가지고 내려온 대장인데 문제는 철거를 하면 우리 집에 이런 화장실이 폐지되었다고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송인1동은 궁안마을 같은 데는 미처 그 양반들이 이사를 가버리면서 신고를 안 해주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마디마디마다 대꾸를 하려고 하면 국장님 여기서 혼나요. 지금 궁안만 해도 100이 넘습니다. 궁안은 없어졌고 중간에 재래식 화장실이 그냥 쓰레기에 묻혀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도시관리국에서 송인1동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분양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20번지 재개발 지구지정된 곳 그곳만 해도 약 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에서 42년째 살고 있는 사람 앞에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화당 때 것이냐 자유당 때 것이냐 물은 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정비를 하고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좀 주시면

○**金正大委員** 국장님! 저를 잘 아시죠? 저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꾸 말을 더해 가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저도 국장님 성격 잘 압니다. 존경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앞으로 추후로 내일 모레부터라도 내놓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수감자료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전에 묻고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물가안정은 상공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서야 될 일도 없는 것이고 미사여구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상단에 보면 말이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있는데 기금 지원을 해준 내역서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얼마, 어느 업체에 몇 프로를 얼마 이렇게 대출해준 것이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 내역서는 볼 수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오늘 그쪽으로 많은 질문을 드리는데 말씀만 하하지 말고 꼭 좀 봅시다.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새해 예산(안)도 며칠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고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협의회를 또 구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구의원 하면서 좋은 싫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활체육회가 수없이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가 자생단체, 직능단체 근래에 생긴 김대중대통령 출범부터 제2건국추진위원회 1년에 한번씩 참석해 봅니다. 이런 위원회가 술하게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 생체협의회 등 우리가 시설투자만 해주면 그분들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안 쓰고도 걸어가줘야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몇 백만원씩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돈을 모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잘 모를 겁니다. 전부 따져보면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소하게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의지를 가지고 구성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金正大委員**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저희 광장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단체가 내부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이 수십개로 70여 개가 된다는 말도

○**金正大委員**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간섭하지 마세요. 비간섭적으로 보고 계세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이것은 간섭을 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를 갖게 된 동기는 저희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모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도 수렴할 기회가 없고 해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가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金正大委員**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종로구 자치구 내에 주요 상공인하면 기준을 어디서 어디를 두십니까? 예를 들어서 33㎡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상공인은 어디서 어디까지 두실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는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규모 공장은 사업자등록으로 같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金正大委員** 제가 볼 때는 뻔한데 자꾸 협의회를 추진한다니까 보겠습니다. 그냥 관공서 앞에 와서 폼이나 잡고 어찌구저찌구 하는 사람들로 대체적인 자생단체나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 자격이 아니라도 종로구민의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금 4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내년도 초에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金正大委員** 예산이 수반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약간의 회의비 정도라든가

○**金正大委員** 약간의 회의비라고 하면 1년에 서너 번하면 저녁 식사값이겠지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운영비 조로

○金正大委員 이런 것을 만들지 마세요.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각 동에 가내공업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런 단체에 가서 저녁 한 끼라도 사고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나가서 인사말이라도 한마디하고 지역경제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시장에서는 찾지 마세요. 광장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지역경제를 찾다면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시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다양하게 상공인들을 다양하게 참신한 인물로 저희가 영입을 해 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구정에 발전 지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金正大委員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 취지를 정말로 우리 구 내에 자생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지만 우리 종로구는 특히 행사 때 보면 아마 구의원들이 매일 한두 개의 초청장을 안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 단체에 투자만 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현금으로 또 도와주거든요. 뒤의 계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의가 밥값이예요. 식사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단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되면 이것도 유야무야됩니다. 여기를 보면 「구정이나 중앙정부로의 가교역할」 구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가교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개 동에 공장이 몇 개 있는지 과장이나 국장님들 몰라요. 계장이나 담당자들은 압니다. 송인1동, 창신3동 가내공업이 몇 개다 이 정도도 모르시면서 광장시장을 찾고 42명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상공회를 만들어서 예산도 넣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 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10월말 현재 예산집행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집행은 미약합니다.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 건 정도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을 하는 거죠?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그럼요.

○宣相善委員 그런데 전혀 신고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저희가 단속한 사항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宣相善委員 포상금을 주는데 예를 들면 10만원 과태료를 물면 거기에 대한 몇 %를 줍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20%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반대로 80%를 주는 것 아닙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아닙니다.

○宣相善委員 10만원이면 8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아닙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전혀 집행한 것이 없었대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한 건 있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나요? 예산은 있었어요? 2000년도에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건에 2만원씩 해서 14만원 집행했습니다.

○宣相善委員 2000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나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2000년도에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예산은 있었대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宣相善委員 역시 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宣相善委員 그러면 2000년도,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닙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14만원 7건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예를 들자면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무단투기가 안될 텐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반상회를 통해서나 공공장소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어야지 전혀 없는데, 물론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자꾸 신고를 함으로써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전혀 홍보를 안 한다 그것입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홍보는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경고판도 있고

○宣相善委員 신고를 하면 포상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그럼요. 다 있습니다. 제가 등에 있어보니까 사실 신고를 주민들께서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500만원 예산 잡아서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7건 밖에 안되고 2000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계속 예산만 잡을 것이 아니라 2002년도 예산은 대폭 줄여도 관계가 없겠네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내년도에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반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겠다고 보는데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아니죠.

○宣相善委員 총 7건에 14만원밖에 안나갔잖아요? 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총 14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500만원에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부족할 것 같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생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時56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洪起瑞 鄭泰淳 千相旭
洪承台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清掃行政課長 權赫祐